

열리다 만 ‘판도라의 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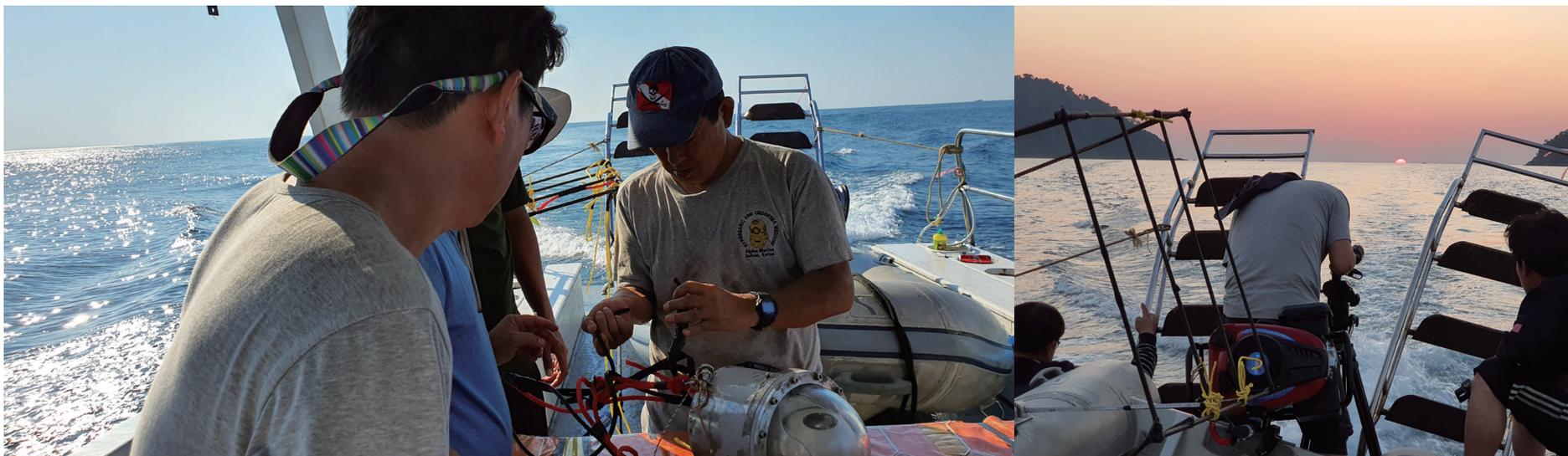
대구MBC특별취재단과 미얀마 선원들의 수색 후 기념 사진

남국의 뜨거운 열기는 스콜이 내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2019년 4월 초, 미얀마에서 2주간의 일본군 위안부 취재 일정을 마친 우리는 고생 뒤에 찾아오는 성취감으로 약간 들뜬 상태였다. 약속 장소인 양곤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유명 한국식당으로 들어섰다. 이번 미얀마 취재를 간접적으로 도와준 미얀마 현지 가이드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 마련된 식사 자리였다.

“KAL858기 엔진을 직접 그물로 건진 어선 선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KAL858기 실종사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자 가이드가 불쑥 던진 말이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6개월 전 모 방

송사의 보도도 제가 연결해줘서 이뤄졌어요. 유족회 일을 돕는 신성국 신부님이 양곤에 오셨다가 이틀 전에 출국했어요.” 관련 보도가 나간 지 여섯 달이 지났는데 신 신부는 왜 다시 양곤에 왔을까? 나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차로서 직감했다.

우리는 귀국한 뒤 바로 신성국 신부를 찾아갔다. KAL858기 유족회 지원단 총괄팀장을 맡은 신부는 17년째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매달려 왔다. 그는 이미 어선 선장을 만나 상세한 조사를 한 상태였다. 취재부장과 보도국장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KAL858기 동체를 찾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는 모두 매우



대구MBC 특별취재단 이종인 수색단장이 수중카메라를 점검하는 모습

대구MBC 특별취재단이 안다만 해역을 촬영하는 모습

놀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기꺼이 동의했다. 제보만 확실하다면 시대의 특종이라며 의욕까지 보였다.

얼마 뒤 우리는 미얀마로 향했다. 제보자인 어선 선장은 경력 30년의 베테랑으로 안다만 해역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은 구체적이었고 KAL858기 엔진을 건졌다는 곳의 좌표까지 가지고 있었다. 천분의 일초까지 나오는 좌표는 오차범위가 5미터 이내로 좌표만 정확하다면 KAL858기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런데 선장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는 취재인 만큼 선불리 결론 낼 수 없었다. 취재진은 한 달 이상 간격을 두고 2차례 더 미얀마를 방

문해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KAL858기 동체를 찾는 무모한 도전이 시작됐다.

어려운 결정을 내린 우리들 앞에 큰 장애물이 가로 막고 나섰다. 과연 미얀마에서 수색이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도 쉽지 않은데 외국에서 어떻게 수색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국 정부와 미얀마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취재진은 신성국 신부와 함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반대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다. 특히 항공기 사고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가장 심했다. KAL858기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맞는데 남북 정상회담으로 무르익은

도 부실했다. 진상 보고서에도 KAL858기 동체를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스스로 밝혔다. 취재진은 조사에 참여했던 민간 조사관을 만나 충격적인 사실도 들었다. 미국 CIA와 안기부도 폭파범이라는 김현희 일행의 행적을 사건 발생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KAL858기가 실종되자 안기부가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 활용한 '무지개 공작'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닐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화해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우리는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말문이 막혔다. 115명의 탑승자 중 단 한 명의 유해도 찾지 못했고 유족들은 30여 년 동안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이유로 유족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한 한 대학교수는 북한 소행이 확실한데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취재진을 말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진상 조사는 너무

우리는 정부의 도움 없이 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수색 계획을 세우고 군사 작전처럼 일을 진행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유족들과 신성국 신부에게도 구체적인 수색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에 KAL858기 수색을 위한 취재 허가는 낼 엄두도 못 냈다. 북한에 의한 테러사건으로 결론이 난데다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미얀마 정부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색에 사용할 배를 구하는 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여러 차례 미얀마를 드나들며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두 달 만에 겨우 배를 구했다.

KAL858기가 실종된 바로 다음날인 11월30일을 첫 수색일로 잡았다. 해난구조 전문가인 이종인 대표와 공군 조

종사 출신인 김성전 전 유족회 고문이 수색단에 합류했다. 2019년 11월27일 대구 MBC 수색단은 미얀마로 향했고 11월30일 새벽 5시, 출항의 닻을 올렸다. 우리는 6시간 정도 항해한 끝에 선장이 지목한 곳에 도달했다. 그러자 음파탐지기에 금속성 물체들이 형체를 드러냈다. 직경 200미터 안의 해저에 수많은 금속성 물체들이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수중 드론으로 촬영에 나섰다. 그러나 시속 6노트가 넘는 빠른 조류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드론이 해저에 내려갈 수가 없어서 촬영 자체를 할 수 없었다. 다음날 이중인 수색단장이 기지를 발휘해 쇠 도르래를 수중 드론에 매달아 촬영을 시도했다. 다행히 54미터 해저에 도착했고 몇 십 분간 촬영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1차 수색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다.

취재진은 귀국한 뒤 수중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일일이 살펴봤다. 그 결과 그물로 둘러싸인 큰 물체를 확인했다. 그 모양으로 보아 KAL858기 추정 동체로 보였다. 우리는 수중 드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수 수중카메라를 준비했다. 그리고 2020년 새해 첫날, 우리는 2차 수색에 나섰다. 이번에는 목표점에서 음파측정기를 이용해 10미터 이상 되는 물체를 4개나 확인했다. 개중에는 길이 30m, 높



대구MBC 특별취재단이 KAL858기 동체 수색을 위해 수색선으로 이동하는 모습

이 10m 정도 되는 물체도 있었다. 성벽처럼 우뚝 솟은 큰 물체와 엔진 모양의 둥근 물체 등 수많은 잔해들을 촬영했다. 어선 선장의 말 그대로였다.

2차 수색 넷째 날인 2020년 1월4일, 수중카메라가 드디어 KAL858기 추정 동체의 엔진과 날개를 포착했다. 누가 봐도 여객기의 엔진과 날개가 분명해 보였다. 그 이후 2차례 더 수색 조사를 벌였고 KAL858기 기종인 보잉 707의 엔진과 같은 모양의 물체를 수중카메라 바로 앞에서 촬영했다. 이 일대에 여객기가 추락한 사실이 없었고 우리가 촬영한 엔진이 KAL858기의 엔진과 같은 기종임을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했다.



대구MBC 특별취재단이 수중드론에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는 모습

관련 보도는 2020년 1월23일 뉴스 데스크 시간에 전국 방송을 통해 톱뉴스로 40분 동안 나갔다. 이튿날도 톱뉴스로 20분 정도 전국으로 보도했다. 33년 만에 나타난 KAL858기 추정 동체의 모습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거의 모든 매체들이 속보를 전했고 정부가 추정 동체를 수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유족들은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2020년 4월 중순 우리는 서울 모처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과 만났다. 첫 보도 이후 석 달이 지난 뒤였다. 비서관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우리는 추정 동체가 KAL858기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답했다. 꼬리날개에 있는 HL7406이라는 기체 등록 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대구MBC 수색단을 다시 미얀마에 보내 줄 것을 청와대에 이미 요청한 상태였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 도움 없는 더 이상 미얀마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지금 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인사는 우리가 설명할 때 꾸벅꾸벅 즐기기까지 했다. 우리는 정부 차원의 수색작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MBC 보도 이후 청와대에서 수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몇 달 동안 갑론을박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말을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2020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 수색을 위해 미얀마 당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와의 이날 만남은 이 지시 때문에 이뤄진 것이었다. 뒤늦은 결정이었지만 유족들은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 수색단 구성을 두고 지루한 논쟁이 이어졌다. 유족들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대구MBC 취재진을 정부 수색단과 함께 파견할 것을 주장했고 청와대는 난색을 표시했다. 우리 정부와 미얀마 정부의 협상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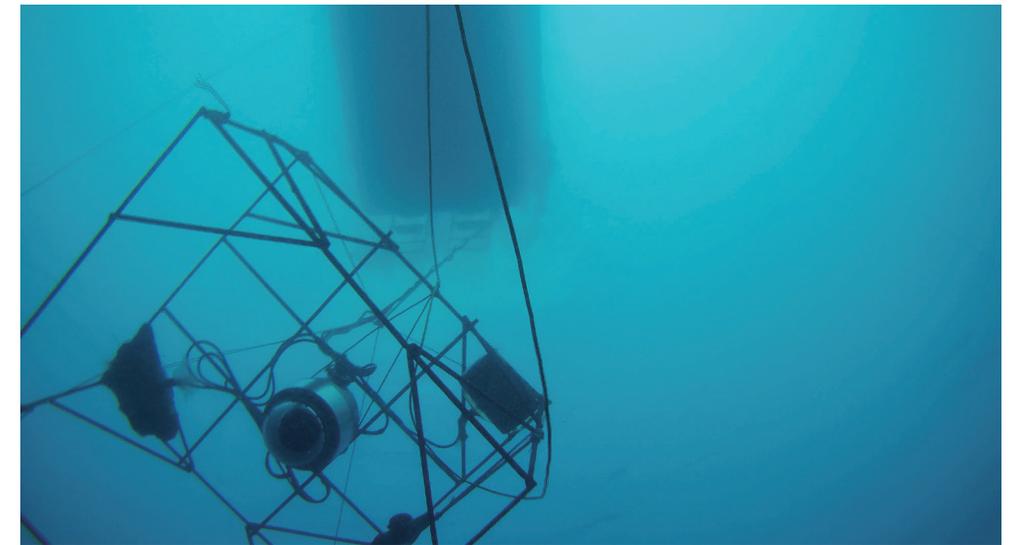
2020년 8월 말, 여당 소속 안민석

의원이 유족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굵든 정부 수색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고 외교부 중심의 정부 수색단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 뒤 정부는 KAL858기 실종사건 발생 33주 기인 11월29일에 맞춰 수색단을 미얀마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부 수색단에 대구MBC는 물론 어떤 언론사의 기자들도 동행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다. 한국 현대사 최대의 미스터리인 KAL858기 실종사건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관련 포스터

수중카메라에 촬영된 KAL858기 추정 동체의 모습



수중드론이 바다 속에서 수중카메라를 아래로 내리는 수색선을 촬영한 장면

유족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일은 또 있었다. 유족들은 처음부터 1~2억 원 정도의 적은 비용이 드는 대구MBC 수색단 파견을 원했지만 정부는 대규모 수색단을 고집했다. 정부는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수색 날짜까지 잡았다. 그런데 정작 수색을 떠날 때가 되자 예산이 없다며 수색 일정을 다음해인 2021년 2월로 미뤘다.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린 사안에 대해 정부가 20여 억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약속을 어긴 것이다. 정부의 이런 해명을 믿기도 어렵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도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해가 바뀌고 유족들은 마음을 줄이며 수색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

다. 그런데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2021년 2월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수색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고 끊을 수 없는 업보처럼 유족들의 고통은 다시 시작되었다. 115명을 태운 KAL858기가 공중에서 사라진지 올해로 35주년이 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단 한 명의 유해도 찾아오지 못했다. 진상규명의 열쇠인 KAL858기 동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취재진은 포기할 수 없다. 최소한 대한민국이 그들을 구하지 않고 망각의 바다에 수장시키는 과정만큼은 철저히 기록해 후세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인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명이다. 🇵🇸